

-영적 전쟁

2015.7.18 옥주원

우리의 본성 - 어떤 싸움이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성원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돌입하게 된 것.

영적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

1. 지나친 강조 : 화를 잘 내면 귀신 때문,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귀신 때문, 등등
-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인 행위들이 마귀와 그 무리의 짓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선 안 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영적 교만:

"나에게 해답이 있다.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모두 권력과 지배, 인정에 대한 욕구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대해 자유롭기는 어렵다.

초자연적 현상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려는 소원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 - 사탄도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과 화해하며(선교), 그 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절인 17~18절에서 병든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리라는 말씀.

-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

2. 불충분한 강조 : 마귀를 쫓는 행위에 대한 **무관심, 혹은 혐오.**

사탄을 인정하기만 해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 -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다.

우리의 승리는 확고하지만, 적군(사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적군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통당하는 군대는 없기에 우린 확고한 승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데 한편 마귀의 꾀술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들의 활동에 빛을 비추어 마귀의 활동에 제약을 주어야 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진리 - 성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의 세력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많이 나옴,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 300번이 넘게 **“두려워 말라!”** 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evil)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두려움 -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대적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생긴다.

※ 두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묻자!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짓지 말고, 마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도록 구하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강건하여지는 것

1. 앉기

- ① **다스린다**(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롬 5:17)
- ② **완결된 작업**(너희도 그(Christ)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10)
- ③ **편히 쉬는 자리**에 있다.

2. 걷기

행하는 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엡 2:9)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엡 4:1)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 4:26)

그리스도인의 삶

-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하는 일 - 다 이루셨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용납될 수 없고, 우린 단지 그분과 함께 **앉을** 뿐
-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기초에 어울리도록 행해야 한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곧 순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에 합당하게 행하고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걸어야 한다**.

3. 서기

- 대적들 앞에 **맞서야 한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 책임이 따르는 행동

새 사람을 입는 것 - 이를 닦고 때마다 자동차 오일을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책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나,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1 3:21-22)

전적인 쉼 가운데 **앉아 구원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음**으로 서 행함으로서 대적 마귀 앞에 **맞설** 준비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영적 전쟁 합시다.